

한국의 전통놀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는 어떤 전통놀이가 있습니까?
한국에도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고백신 놀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국의 전통놀이는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땅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알고 있습니까? 이 세 나라의 이름을 딴 고백신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는 바닥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편으로 나누어 금을 굿고 겨루는 놀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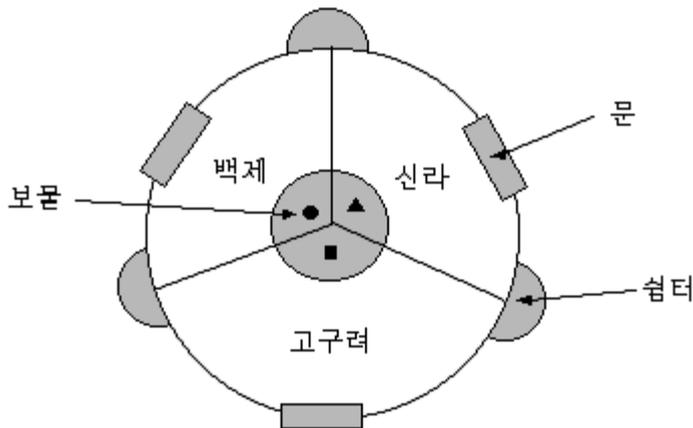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계

6~7세기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을 위주로 그 싸움이 이어졌는데, 백제가 가장 먼저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위쪽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었고 신라는 땅이 작고 가장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나라와 연합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무너뜨리며 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고백신 놀이에서 가장 큰 칸을 고구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삼국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중에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당나라 조약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역사적인 배경을 잘 보여 줍니다.

놀이 방법

-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세 개 칸으로 나누어요.



- * 칸을 나눌 때는 고구려를 제일 크게, 다음으로 백제, 신라의 순으로 크기를 나누어요.
- 가위바위보를 해서 팀을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요.
- 각 팀의 보물을 준비해요. 보물은 나무막대, 돌맹이, 책 등 아무것이나 괜찮아요.
- * 땅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해 움직여야 해요.
- * 자신의 영토가 아닐 때는 한 발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 * 침터에서는 두 발로 실 수 있으며 쉬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 * 공격하는 사람은 두 발이 모두 땅에 닿으면 죽어요.
- * 수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되지만 금을 밝거나 금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함께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당나라 조약'이라고 해요.
- 자신의 나라의 보물을 지키고 상대 나라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오는 팀이 이겨요.